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폐막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지적축구팀 FC광주엔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본볼 종합 2위를 차지한 전남 선수단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 ‘맹활약’… 전남 ‘원정 역대 최고’ 성적 거뒀다

광주, 금 67·은 69·동 57 ‘종합 6위’…축구·당구·보치아 등 선전

전남, 금 44·은 24·동 57 ‘종합 7위’…카누·론볼 등 호성적 견인

장애인 스포츠 선수들의 꿈과 열정의 무대인 ‘제 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6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지난달 31일부터 5일까지 부산 일원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9806명(선수 6106명·임원 및 관계자 3699명)의 선수단이 31개 종목에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22개 종목에 출전한 광주 선수단은 금메달 67개, 은메달 69개, 동메달 57개 등 종합점수 11만9928점으로 종합 순위 6위에 올랐다.

광주는 이번 대회에 3관왕 9명을 배출했다. 또 한국 신기록 12개, 한국 타이기록 1개, 대회신기록 6개를 달성하며 맹활약했다.

양궁은 지난해에 이어 종합순위 1위(5966.40점)로 마무리 지었다. 보치아, 배구 선수

단은 각각 종합순위 3위에 자리했다.

보치아는 단체 종목에서 금메달 2개를 획득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뒀다.

국가대표 강선희(한전KPS)·신철인(우미건설)은 혼성 2인조(페어) BC3에서, BC4(선수부)에서는 김소인(광주장애인보치아연맹), 정동석(광주 장애인보치아연맹), 나미숙(한국알프스)이 우승을 차지했다.

지적축구팀 FC광주엔젤은 올해 역시 정상 자리를 지켰다. 이들은 결승에서 서울을 만나 3-0 완승을 거두며 2연패를 달성했다.

당구에서도 의미 있는 활약이 나왔다.

류형욱(한국전력공사), 강대식(광주장애인당구협회), 이병귀(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신용수(광주장애인당구협회) 등이 출전한 당구 선수단은

최종 4040점을 획득, 총 4개 메달(은 2·동 2)을 광주에 안겼다. 이로써 광주는 당구 종목에서 지난 2010년 첫 출전 이래 역대 최고 성적을 작성했다.

한상득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은 “17개 시도 중 종합순위 6위를 달성한 광주 선수단의 투혼에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일자리 연계 사업, 신인선수 발굴 및 육성 등 체계적인 운영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광주가 장애인체육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30개 종목에 704명이 참가한 전남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44개, 은메달 54개, 동메달 57개 등 총 10만5928.70점을 획득, 원정 역대 최고 성적으로 종합 7위에 랭크됐다.

전남은 이번 대회에서 1개의 한국신기록과 3개의 대회신기록을 수립했다. 여기에 3관왕 6명, 2관왕 6명 등을 배출했다.

카누에서는 여자 VL3 200m의 손영숙(한국전력공사)이 1위를 차지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남자 VL2 200m 김광현(전남장애인카누연맹)과 남

자 VL3 200m 신경문(녹색에너지연구원)이 각각 은메달을 획득하며 전남 카누의 저력을 입증했다. 특히 손영숙은 전남 경기에서도 금메달을 추가하며 이번 대회 2관왕에 오르는 기업을 토했다. 그 결과 전남은 카누 종목에서 금 3개, 은 3개를 따내며 4번째 종합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육상트랙에서는 황상준(한국농어촌공사)이 남자 10km 마라톤 DB(선수부) 경기에서 22분 24초 93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해 이번 대회 3관왕에 올랐다.

배드민턴에서는 국가대표 유수영(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 남자 단식 WH2(선수부)와 진기범(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출전한 남자 복식 WH1·WH2(선수부)에서 각각 금메달을 차지했다. 풍부한 국내·국제 대회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친 유수영은 두 종목 모두 완벽한 경기력으로 승리를 거두며 대회 4연패의 금자탑을 쌓았다.

여자좌식배구는 결승에서 충남과 치열한 접전을 벌였으나 아쉽게 은메달에 머물렀다.

본볼 B7 여자 3인조 윤복자·윤남순(이상 한전 KPS)·황은순(한국농어촌공사)은 울산과의 결승전에서 4-3으로 극적인 승리를 거두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로써 전남 본볼팀은 종합 2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탁구에서는 혼성 복식 체급종합14(스탠딩·선수부)에 출전한 이창식(한전KDN)·고희영(한국농어촌공사) 조가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수영 여자 접영 100m S14(동호인부)에서도 변경호(한국농어촌공사)가 1분43초42의 기록으로 3위를 기록, 이번 대회에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1개를 따냈다.

박정현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이번 대회에서 보여준 선수단의 열정과 투혼은 모든 도민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선수들이 흘린 땀과 도전정신은 전남 장애인체육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원동력”이라며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앞으로도 선수들이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최고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전남 공사 5명, 국가대표 3차 선발전 진출

안산·김수린·오예진·최미선 통과

순천대 김서하 63.75점…14위 생존

광주·전남 공사 5명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을 위한 2026 양궁 국가대표 리커브 2차 선발전을 통과했다.

2025 현대양궁 월드컵 파이널에서 우승하며 ‘왕중왕’에 올랐던 안산(광주은행텐텐양궁단)은 지난 4일 예전 진호국제양궁장에서 끝난 여자부 2차 선발전에서 배점합계 101.75점을 기록, 1위 강재영(현대모비스·109점)에 이어 2위로 20강에 안착했다.

1차 선발전을 2위로 통과한 김수린(광주시청·99.5점)은 5위, 전국체전에서 임시현을 꺾고 여자대학부 최강에 오른 오예진(광주여대·97점)은 6위, 2016 리우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최미선(광주은행텐텐양궁단·61.75점)은 16위를 기록해 3차 관문에 도전한다.

안산은 “세계양궁선수권대회와 양궁월드컵 파이널 등 잇단 국제대회에서 경기력을 끌어올린 결과 흔들림 없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것 같다”며 ““다시 시작”이라는 초심을 되새겨 남은 3차 선발전에서도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과 집중력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오예진은 “광주여대 유니폼을 입고 뽀뽀 마지막 무대라 다소 긴장도 났으나 기대한 만큼의 결과를 얻어 후련하다”며 “내년에 광주은행에 입단해 실업팀 선수로 뛴다. 이전 학생 선수가 아닌 실업팀 선수라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더 큰 꿈을 꾸고 싶다. 최미선·안산 선배와 함께 호흡하며 치열



양궁 국가대표 2차 선발전을 통과한 광주 공사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미선, 안산, 오예진, 김수린.

한 선의의 경쟁으로 아시안게임 태극마크를 반드시 따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전남에서는 김서하(순천대)가 14위(63.75점)에 자리하며 유일하게 생존했다.

남자부에서는 김우진(청주시청·116.5점), 김제덕(예천군청·112.75점), 구본찬(현대제철·102점)이 1~3위를 차지했고, 이우석(코오롱엑스텐보이즈·99점)은 김선우(코오롱엑스텐보이

즈·100.25점)에 이어 5위를 차지했다.

‘고교생 패기’로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쟁을 펼친 심우한(광주체고)은 아쉽게 22위를 기록하며 태극마크 도전을 다음 기회로 미뤘다.

2차 선발전을 통과한 남녀 각 20명은 내년 상반기 3차 선발전을 치러 남녀 각 8명의 2026 양궁 국가대표를 선발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스토브리그 초읽기…KBO, FA 선수 명단 공시

KIA, 최형우·박찬호 등 6명 최다…30명 자격 획득

한국야구위원회(KBO)가 2065년 자유계약선수(FA) 자격 선수 명단을 공시했다.

5일 KBO에 따르면 2026년 FA 자격 선수는 총 30명이다. FA 등급별로는 A등급 7명, B등급 13명, C등급 10명이다. 이중 처음 FA 자격을 얻은 선수가 13명, 재자격 선수는 11명. 이미 FA 자격을 취득했지만 FA 승인 신청을 하지 않고 자격을 유지한 선수는 6명이다.

KBO리거는 구단 내 연봉 순위와 전체 연봉 순위 등을 기반으로 FA 선수 등급을 A~C로 나눈다. A등급 타 구단 선수를 영입한 구단은 보상선수 1명(보호선수 20명 외)과 전년도 연봉 200% 또는 전년도 연봉 300%를 원소속팀에 지급해야 한다.

B등급 보상 규모는 보상선수 1명(보호선수 25명)에 더해 전년도 연봉 100% 혹은 전년도 연봉 200%다. C등급은 보상선수 없이 전년도 연봉 150%다.

이번 FA 선수 명단은 구단별로 KIA가 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삼성·kt·두산이 각각 4명, LG·한화·롯데가 3명, SSG·NC·키움이 1명이다.

KIA는 최형우, 박찬호, 양현종, 이준영, 조상우, 한승택이 명단에 올랐다. 가장 주목되는 건 박찬호다. 그는 7년 연속 130경기 이상을 소화하며 팀 수비의 핵심을 맡아왔다. 앞서 KBO가 2023년부터 시상하고 있는 수비상 유격수 부문에서는 2년 연속 수상하며 안정된 수비력을 입증하기도 했다.

또 2023년과 2024년 3할대 타율을 기록하며 공격력 또한 과시했다. 올 시즌 역시 134경기



최형우



박찬호

148안타 42타점 27도루 타율 0.287의 호성적을 기록했다.

폴타임 유격수인 그가 팀을 떠나면 수비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 박민, 정현창 등 대안은 있으나 그의 자리를 대체하기엔 부족하다.

올 시즌 팀 내 유일 규정 타석 3할을 기록한 최형우도 있다. 2023시즌 맹활약하며 1+1 비 FA 계약을 한 그는 2024시즌에도 팀의 통합우승을 이끌었다. 올 시즌에도 133경기에서 타율 0.307 OPS(출루율+장타율) 0.928로 팀 타선을 이끌었다. 변수가 많은 팀 상황에서 안정감을 더하기 위해서는 그의 존재감이 필요하다.

KIA가 현실적으로 모두 붙잡을 수는 없었지만, 최대한 집토끼 단속에 집중해야 한다.

2026년 FA 자격 선수는 7월까지 KBO에 FA 권리 행사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KBO는 신청 마감 다음 날인 8월 FA 권리를 행사한 선수들을 FA 승인 선수로 공시한다. FA 승인 선수는 공식 다음 날인 9월부터 모든 구단(해외 구단 포함)과 계약을 협상할 수 있다. 송하중 기자 hajong2@